

## 치 사

**경기북부지역 불교음악인의 화합과  
축제 무대인 ‘제7회 경기북부통일  
음악예술제’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**

**아울러 오늘의 이 야단법석을  
준비하느라 애쓰신 경기도북부  
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인묵스님과  
파주시불교사암연합회 초격스님을  
비롯한 여러 대중스님들의 노고에  
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**

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경기 북부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에 살아 숨 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곳 파주시의 보광사와 도솔암은 우리 민족의 흥망과 함께 해온 천년고찰입니다. 또한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이자 근·현대사의 대표적 고승이며 선지식인 용성선사가 수행하였던 매우 뜻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번 공연에서 용성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평화통일의 염원을

**담아 무대에 올린다 하니 참으로  
의미 있는 일입니다.**

**모쪼록 이번 음성공양의 향연이  
널리 퍼지고 퍼져 고통 속에  
신음하는 북녘동포의 마음에 평화  
통일의 법향이 되길 기원합니다.  
감사합니다.**